

職業母性과 非職業母性の 嬰乳兒 養育法에 關한 比較研究

金 昭 仁

高麗大學校 大學院 看護學科

<지도: 崔 蓮 順 副教授>

目 次

I. 緒 論

- A. 研究의 目的
- B. 問題의 提示
- C. 假 說
- D. 研究의 限界

II. 文獻研究

III. 研究節次

- A. 對象者
- B. 研究期間
- C. 道具 및 方法

IV. 調查結果

- A. 調查對象의 一般의 特性
- B. 養育方法
- C. 父母의 一般의 特性

V. 論議,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英文抄錄

I. 諸 論

A. 研究 目的

兒童의 成長 發達適程에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시기의 養育方法에 依存된다고 본다. 健全한 國家¹ 는健康한 아동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肉體의 精神 情緒의² 그리고 社會的인 面에서 볼 때 영유아기의 養育법이 그 바탕을 이룬다고 믿는다. 그래서 영유아³ 養育법을 보다 効率的으로 施行함으로써 健全한 幼兒期를 지낼뿐더러 健全한 社會形成에 큰 功이 될 것임으로 이 영유아의 養育을 누가 責任을 지고 기를 것인가 하는 問題에 當面하여 어머니들의 영유아의 관심도와 기르는 法 그리고 효율적인 영유아의 포괄적 간호가 重要하다고 본다. 포괄적 간호의 개념에는 「現代의 간호 개념은 過去 疾病이나 治療 위주의 간호에서 벗어나 人間을 中心으로 人間의 肉體的 要求는 勿論, 精神 정서적 내지 社會的 要求를 이해하고 또 그러한 要求를 충족시켜 주는 健全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간호

1) 허정도: 모성보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실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별책 1968. p.7)

2) 강신효: 공중보건잡지(제7권 No. 1, 1970) p.49.

3) 김영영: 공중보건잡지(Vol. 9, No. 2, 1972) p.128.

의 수행을 의미 한다」⁴⁾라고 하였고 또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간호가 병원에서의 生活 적응에만 국한된 간호라기 보다 나아가서 地域 社會에서의 간호이다」⁵⁾ 하였음은 가정이 한 地域 社會의 구성이 됨으로 家庭에서 어머니들의 영유아 看護가 얼마만큼 크게 영유아의 정서 및 身體發達에 미치는가를 調査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研究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目 的

1. 家庭에서 영유아의 養育方法을 파악하여 보다 效果의인 전인간호의 方法을 모색한다.
2. 영유아의 양육방법이 아기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다.
3. 職業母性집단의 양육법과 非職業모성집단의 子女의 양육법에서 수유나 수면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研究하는데 있다.
4. 職業母性집단들의 子女에 대한 애정의 表示를 알아보고자 한다.

B. 問題의 提示

1. 영유아의 양육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이 어느정도 關心을 두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2. 變遷하는 가족개념과 가족수 등, 가족 구성원의 狀況과 女性 취업률의 증가로 미루어 보아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살피는 時間이 줄어들 것이다.
3. 父母의 年令과 양육방법에 관한 문제를 보고자 한다.
4. 양육방법이 일부 정서적인 發達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5. 子女들의 要求(need)에 대한 양육방법을 有效적 適切 적용키 위한 것을 보고자 한다.
6. 職業母性집단 子女에 대한 양육방법과 비 직업모성집단들의 子女에 대한 양육방법을 검토하여 차이점

을 알아보고자 한다.

C. 假 說

1. 직업모성들의 子女들은 비직업 모성들의 子女에 비해 모성의 애정 결핍으로 손가락을 빠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이다.
2. 직업모성들은 비직업모성들에 비하여 子女들을 계획하여 원하는 子女를 가졌을 것이다.
3. 비직업 모성들은 직업모성들에 비하여 음식이나 우유를 먹일때 품에 안고 먹이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이다.

C. 研究의 限界

本 研究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1. 표집대상을 서울市內에서 간호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子女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첫째, 둘째, 네째까지 아이를 調査對象으로 하였으며 간호교육을 담당한 教授들의 子女 양육법, 즉 수유의 방법, 수면의 습관, 양육자.....등에 한정했다.
2. 표집대상 子女들의 出生年度는 1969年 3月生부터 1973年 3月生까지로 국한하였다.
3. 非職業母性의 教育은 大學卒業母性으로 하며 아이들은 첫째, 둘째.....네째까지 한정했다.
4. 非職業母性의 거주지역은 상도동과 서교동 一帶의 母性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집하였으며 양육법 즉 수유의 방법, 수면의 습관, 양육자.....등에 관해서 한정했다.

II. 文獻研究

영유 아기의 養育方法이 정서적 발달에 重要하다는 것에 關한 理論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입산부들이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시키는 것은 根本적으로 아기와 어머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정서적으로나 肉體적으로 더이상 완전한 方法은 없기 때문이다. 곧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정서와 육체를 전부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모유 수유를 부인하고 수유시키는 태도가 불안하다면 아기는 安定과 平和의 根原이 되는 “어머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지도를 시작할 때는 그 어머니의 철학, 계획, 태도, 養育能力을 먼저 알고서 고려해야 하

4) 전산초: 내의과 간호학(서울 수문사 1971) p.3.

5)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서울 수문사, 1972) p.4.

며 하며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⁶⁾고 하였고, 슈미트(Schmitt)⁷⁾에 의하면 모유수유는 유아의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아이와 어머니의 정서에도 깊은 관련이 형성된다고 하며 유방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기쁨은 그의 마음이 수유의 만족으로 가득차 있을 때 도 극히 간단한 비결이라 하였고 어린이는 어머니의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성장되어 간다고 하였다.

어린이는⁸⁾ 어머니와 함께하는 경험과 그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아는 자기세계의 범위를 배운다고 하며 수유 휴식 안위와 안정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주위환경과 양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수유와 사랑은 동시에 필요하다.

유아의 위(stomach)가 비어 있을 때는 그의 전세계가 비어 있다. 모유나⁹⁾ 인공수유에 있어서 젖꼭지는 어린이의 最上의 행복을 누리는 原泉이 된다. 수유는 또한 어머니와 어린이 사이에 언어교환이 된다 하였고 어머니가 어린이의 안위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어머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린이의 주변세계는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place)이라는 것을 어린이가 사회에 대해 첫번째로 배우게 되는 職業이라고 기록됨을 볼 수 있다. 精神分析學者인 에릭 에릭슨¹⁰⁾(Erick Erikson)은 생후 1년간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중요한 時期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적절한 保護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신뢰감을 發達시키지 못하는 結果로 社會的 關係가 영구적으로 부정적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영유아기때 자신감과 신뢰감을 發達시키지 못한 어린이는 精神的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였고 청년기때 부정적되기 쉽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최초의¹¹⁾ 給乳方法이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은 경우 즉 급유동작이 고통을 가져왔거나 피부접촉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불안하고 긴장해 있으면 어린이를 멋대로 취급하기 쉬우며

따라서 어린이는 편안하지를 못할 것이다. 이러한 爽 증은 아무렇게나 거칠게 다루는데 까지 확대되어 어린이가 餘滿感을 느끼기 전에 授乳를 중단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수유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어린이를 울도록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어린이는 어머니의 역할과 空腹感이 상호 연관되는 속에서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授乳와¹²⁾ 關聯된 經驗은 信賴心을 키우는데 가장 重要한 要素이다. 生後 4個月된 배가 고피는 유아는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젖이 주어진다 상 상신뢰로, 조용해지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공복일 때 음식을 먹게되어 기분이 좋아진 經驗이 反復됨으로써 세상은 믿을 수 있을만한 곳이라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고, 정서적으로¹³⁾ 차갑고 자극이 없는 환경 매일 일정하게 개인의 특별한 關心을 받지 못한 유아들은 말이 없고 수동적이며 비활동적이고 不幸하고 정서적으로 不安定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였다.

영아 초기의 심한 방치나 허대를 받은 유아들의 두드러진 特徵은 냉담 야원몸 창백 비활동성 과묵 미소나 회열에 대해 무반응이며 무분별한 嗜食과 영양분의, 과다섭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지 않는다. 이런 특징과 결부되어 잦은 대소변, 불면증, 불안현상, 유행성열병, 젖을 빨지 않는 습관등을 갖는다고 한다. 장병립의 아동심리학¹⁴⁾의 연구관찰에 의하면 갓난은 아기에게도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며 生命 體로써 일차적 要求에서 오는 현상이 많다고 한다.

Bridges여사는¹⁵⁾ 처음 新生兒에게서 보여진 情緒는 무엇이라고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미분화의 흥分의 정서이다. 모든 종류의 정서는 이같은 근원적인 정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하며 생후 3개월이 되면 이 근원적인 흥분의 정서에서 快(delight)와 不快(distress)의 두출기의 정서가 분화된다고 하며 이때 快의 정서는 긴장이 해소되고 미소를 짓고 아기가 “우우” 소리를 내는등 환경에 대해서 만족스런 반응으로 나타내고 불쾌의 정서는 어떤 혼란된 자극반응으로 근육에 긴장을 일으키며 울고 숨을 잘 내어쉬지 못하는 등 불만족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약 12개

6) 최연순, 임상간호교육의 일 실험방법의 효과측정 대한간호학회지 (제2권제1호)

7) Madelin: H. Schmitt Superiority of Breast-feeding fact or f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0) No. 7) p. 1488.

8) Eleanor Pavenstedt; To help infant weather disorganized family life, A. J. N. p. 1668 1969.

9)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child development, Children's Bureau Infant care. pp. 1~13

10) Erick Erickson; The Course of Healthy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nstone 1960. p. 176

11) Forest;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 Hill) 1954, p. 36.

12) 黃應淵編譯: 어린이를 위한 精神衛生(서울. 제동문화사 1968) p. 22.

13) Jersild, A. T. Child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1947) p. 235.

14) 장병립: 아동심리학(서울. 범문사. 1969) p. 112.

15) 남억우 공저 아동심리학(서울 왕문사 1966) p. 108.

월이 되면 쾌의 정서가 得意(elation)와 愛情(affection)으로 분화된다. 그런데 得意의 정서는 事件이나 事物에 대한 즐거운 반응을 의미하고 愛情의 정서는 사람에게 대한 즐거운 반응을 의미한다 하였고, Hurlock¹⁶이 설명하는 嬰兒期의 분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서 아기가 할려고 하는 행동을 못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注意를 끌려고 울어대나 아무도 응해 주지 않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얼굴을 찡어할 때라고 하였다.

영유아의 애정에 관해서 李¹⁷는 말하기를, 애정이란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서 한가지 정서반응으로 아동에게 유쾌한 경험을 주므로써 조건화되어 일어난다고 하며 어린 아이들은 자기와 놀아주고 돌봐주고 다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는데 이같은 애정의 정서는 父母에게 대해서만 가지는 선천적인 정서반응이 아니라 자기를 잘 돌봐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愛情을 가지는데 누구에게든지 갖는 정서다. 他人¹⁸에 對한 愛情反應은 5個月때부터 안아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반기는 사람에게는 분별없이 그에게 愛情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6個月이 지나서는 자기에게 親近한 사람에게만 애정을 보이고 이때부터는 아기의 신체활동에 조절을 가져와서 대상에 대해 접근하는 行動을 취한다. 이때는 주로 자기 家族에게 愛情的 反應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흥미¹⁹는 주위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여진다고 하며 아이들은 6,7개월이 지나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면 목적물로 가서 그 물건을 잡아 쳐 들고 끌어당기고 밀고 흔들거리면서 소리를 낸다. 이때 아이들은 잘 돌보지 않으면 物件을 깨뜨리고 몸을 상하기 쉽다고 했기 때문에 모성때문만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의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셸리(Shirley)는 주어진 환경요인이 그의 성격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부레켄지²⁰(Breckenridge)와 빈센트(Vincent)는 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性格 特性은 그가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 되므로써 변화되기는 하나 성격은 변화하지 않은 中心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아기때

아기의 환경은 가정이란 환경에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아기의 성격은 이때에 경험한 父母子息간의 관계에서 크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며 뮌센²¹(Mussen)은 젖먹는 환경에서의 아기의 학습을 다음과 같이 說明해 주고 있다. 아기들은 특별히 생후 1년간 그의 젖먹는 환경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본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때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아기가 기쁨과 만족을 많이 느꼈으면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매우 친근감을 갖길 뿐만 아니라 그는 성장해 가면서 他人에게 접근하는 태도를 가지며 애정과 신뢰의 성격이 키워지게 된다고 하며 반면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기가 고통과 불안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며 그는 어머니에게 대해서 친근감을 갖지 못하고 또 성장해 가면서는 타인에게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이들에 대해서 불신과 적대감의 태도를 갖게되기 쉽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 아동이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사랑이 가득찬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원만한 성격을 發展시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아동이 될 것이다.

몸²²이 건강치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사랑이 배마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아기는 어딘가 이즈러진 성격을 갖게 되기 쉽고 이로 인해서 그는 일생을 불안하게 지나게 될 아동으로 키워지기 쉽다. 어렸을 때 아기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인이 그의 성격발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아이와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한가에 의하여 영아가 장래 타인에 대한 사회적 행동여하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이다. 갓난은 아이를 운다고 안아주는 버릇을 들이면 안아주어야 안정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출생초기에는 영아의 생리적 요구에 의하여 사회적 행동이 형성 발달하게 된다. 특히 배고픔 같은 요구는 초기학습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후로이드²³(S. Freud)는 영아기를 구강기(oral stage)라 하여 빨거나 핥거나 깨무는 것에 의하여 사회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영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방법에 따라서도 社會的 태도가 형성된다

16) Hurlock E. V.,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5) p.167.

17) 이현수: 간호심리학(서울, 수문사, 1972) p.12.

18) 羅炳述, 嬰兒의 사회적 발달, (中央大學學報(제4집), 1968) p.54.

19) 金聖泰, 發達心理學(서울, 法文社, 1967) p.82.

20) Breckenridge, M. E. and Vincent E. L., Child Development(Philadelphia; W. B. Saunder, 1964), p.9.

21) Mussen P. H. et al,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1963), p.35.

22) 李光杓: 고려대학 대학원(교육) 석사학위 논문 학령전 아동의 불안에 對한 연구 1972, p.3.

23) Freud, S. Three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Sex. (In A; Brillloed New York, Mordern Library, 1958) pp. 553~929.

24) 女苑社編, 育兒(女苑社 1959) p.52.

고 했다.

생후 1개월쯤 되면 **母**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그 뒤엔 **신변**에 가까운 사람과 접촉이 없던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절의 수용에 의하여 발달하게 되므로 가장 접촉이 많고 일차적 요구의 공복을 만족시켜주는 수유를 하는 어머니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것이다. 출생당시에는 **群集性(gregariousness)**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이 모여 있는데를 좋아하는 경향은 없다. 그후 어머니가 앉아 있을 때만 접촉하고 공복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해소하므로 처음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안정감을 얻게 되어 차차 혼자 누워 있는 것 보다 안아주면 좋아하게 된다.

하로우²⁴(H. Harlow)는 어린 원숭이를 실험하여 입증하였다. 즉 허수아비를 하나는 철사가 딱딱한 것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질감의 것으로 만들어 두면 틀림없이 부드러운 것에 가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드러운 것은 안정감을 줌으로 같은 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늑함을 느끼고 즐거워 하며 아버지가 안으면 우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에는 접근하려고 하고 불편감을 주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 이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인한 것이다. 정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아버지 언니 할머니등 자주 안아주고 접촉하는 순서로 영향을 받아 발달하고 혼자보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지는 군집성이 생긴다.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만 안기는 아이는 사회적 행동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며 1~4개월이 되면 영아는 꾸짖는 것과 화내는 것, 좋아하는 것을 식별하여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3개월이 되면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4개월에는 얼굴을 가려내어 품에 안기려고 한다. 5개월부터는 울음으로 사람의 주의를 끄는 습관이 형성되어 웃음과 질책에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고 원절과 분노의 음성을 구별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이때부터 낯선 사람을 보면 공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낯가림(shy of strangers)**이 생기는 것이다. 낯익은 사람이나 잘 돌봐 주는 사람에게는 웃음으로 대하고 간섭에 대해 노하기도 한다.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 까지를 **낯가림(strange age)**이라 한다.

낯가림²⁵은 영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이 접촉이 적고 어머니가 너무 패쇄적으로 기르면 더욱 심한 것이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 자주

접촉시키면 낯가림은 없어진다.

7개월이 되면 성인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그 행동에 응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라디오에서 유행한 곡이 흘러나오면 그에 응하여 흥을 낼 수도 있다. 8개월까지 영아의 70~80%는 자기 자신에 의한 독립적인 표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아의 사회적 발달을 유발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이며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성은 조성되어 진다. 특히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영아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므로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하다.

Ⅲ. 研究節次

A. 對象者

本 研究는 서울 市內에 거주자인 자녀를 가진 일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간호대학과정 교수로써 자녀를 기르고 있는 집단과 일부지역 상도동, 서교동 일대에 거주하는 비직업모성 자녀를 기르고 있는 집단에 조사하는 데 그 수의 비는 다음과 같다.

〈표 1〉 研究 對象者 數

직업여성주부	일부지역주부	합
53	45	98명

B. 연구기간

1973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0日間을 資料 수집하였으며 1973年 11月 22日 本 論文을 完成하였다.

C. 도구 및 方法

연구자는 질문서(부록 참조)의 內容에 따라 專門 직업주부 集團은 각 학교 즉 직장을 방문해서 개별 質問 應答하여 접촉하였다.

非職業 주부집단 대상은 질문서를 주고 면접하면서 進行했다.

研究方法 : 설문을 만들고 그 설문지로 두 모성집단을 면접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였으며 그 방법은 백분율과 카이제곱법(X^2)을 사용하여 전자계산을 의뢰 검증하였다.

24) 라벨 : 발달심리학(서울대학교출판사) 1969) p. 102.

25) G. S. Benz, Pediatric Nursing 5th, ed. (Saint Louis; the C. V. Mosby Co. 1964) pp. 66~73.

IV. 調查結果

A. 調查對象兒의 一般의 特性

本 研究는 서울市內에 居住者인 子女를 가진 主부로써 대상 영유아의 개인력과 가족배경 및 一般 양육방법, 수유습관, 수면습관, 누가 주로 돌보아 주는가를 관찰하였다.

〈표 2〉 영유아의 性別

	主 婦		職 場		全 體	
	N	%	N	%	N	%
男	50	43.86%	62	56.36%	112	52.34%
女	54	47.46	48	43.64	102	47.66
무응답	10	8.77	0			

(表 2)에 의하면 총 대상아의 224명의 성별 및 出生年度別 分布를 보면 남아가 112 (52.34%) 예, 女兒가 102(47.66%) 예로 男兒가 조금 많았으며 그중 비직업 모성집단의 경우는 男兒가 50예(43.86%) 女兒가 54예(47.46%)였고 직업모성집단은 男兒가 62예(56.36%) 女兒가 48예(43.64%)로 양집단에 있어 男女의 구성비는 비슷하여 性別의 큰 차이는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3〉 영유아의 出生년도

	주 부		직 장		전 체	
	N	%	N	%	N	%
6 9 年	47	41.23	14	12.73	61	29.05
7 0 年	27	23.68	48	43.64	75	35.71
7 1 年	10	7.89	14	12.73	23	10.95
7 2 年	16	14.04	17	15.45	33	15.71
7 3 年	12	10.52	6	5.36	18	8.57
무응답	22	1.63	11	10.00	4	2.01
合 計	114	—	110	—	214	—

(表 3)에 의하면 出生年度別 分布는 69年, 70年, 71年, 72年, 73년까지 보았는데 그중 70년이 75예(35.71%) 그 다음이 69년이 61예(29.05%), 그외 72年度 出生이 33예(15.71%), 71년도 23예(10.95%), 73年度 出生이 18예(8.57%)의 순위를 볼 수 있다. 비모성집단은 69年 47예(42.34%)로 수위를 차지하며 직업여성집

단은 70年 以前이 48예(48.48%)로 많으며 72年 出生年 度比는 양집단 같음을 볼 수 있다.

〈표 4〉 出生時 體重

	주 부		직 장	
	N	%	N	%
2.5~2.9 kg	27	23.68	27	24.55
3.0~3.4 "	32	28.07	53	48.18
3.5 以上 "	27	23.68	23	25.45
무응답	28	24.56	21	1.82

(表 4)에 의하면 비직업모성집단은 무응답이 28예(24.5%)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분만이 많은 까닭이다. 따라서 體重은 알지 못함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조사된 것 中에는 3.0~3.4kg이 32예(37.21%), 직업모성집단도 亦是 3.0~3.4kg가 53예(49.07%), 2.5~2.9kg, 3.5kg 以上 體重을 지닌 아이比는 양집단 다 27예(25.93%)로 別 差異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5〉 出 產 場 所

장 소	구 분	
	가 정 주 부	직 업 주 부
病 院	30(26.5%)	104 (95%)
家 庭	76 (67%)	6 (5%)
無 應 答	8 (6.5%)	0
合 計	114(100%)	110(100%)

(表 5)에 의하면 비직업모성집단중에는 가정 분만이 67%로 수위이고 病院이 26.5%로 차위이며, 직업여성 집단은 病院이 95%로 수위이며 가정분만은 5%로 나타났다.

〈표 6〉 자녀의 수

名	主 婦		職 業	
	N	%	N	%
1 名	5	15.56	12	22.64
2 "	22	24.44	36	25.06
3 "	42	40.34	42	49.42
4 名 以上	10	15.22	1	1.89
無 應 答	2	4.44	0	0

(表 6)에 의하면 영유아 총 214名 中에서 셋째 아이가 가진 곳이 비직업여성집단, 직업여성집단, 양집단 42예(49%) 둘째아이 순위가 비직업여성 22예(24%) 직업여성 32예(25.6%)의 차이이며 아이 1명인 경우도 양집단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特記할 만한 事項은 아이 넷까지 둔 비교에 있어서는 비직업모성 집단 10예(15%)에 비해 직업모성집단 1예(1.89%)를 보이고 있다.

B. 養育方法

<표 7> 授乳는 무엇으로 하나

	주 부		직 업		전체
	No.	%	No.	%	
母 乳	71	62.23	8	7.28	79
牛 乳	3	2.63	13	11.82	16
混 合	32	28.07	32	29.09	64
다른 음식	5	4.39	55	50.00	60
無 應 答	3	2.63	2	1.82	5

(表 7)에서는 비직업모성집단은 모유를 먹이는율이 71예(62.28%) 직업모성집단은 母乳를 먹이는 율이 8예(7.28%), 로 다른 음식을 주는 비는 양집단 같으며 혼합식이를 주는 경우는 직업모성집단이 55예(50%)로 높으며 비직업 모성집단은 5예(4.39%)이다.

<표 8> 누가 牛乳를 먹이나요?

	주 부		직 장	
	No.	%	No.	%
母	75	65.79	43	39.07
祖 母	13	11.40	36	32.73
食 母	19	16.67	25	22.72
無 應 答	7	6.14	3	2.73

(表 8)에서는 누가 수유와 음식섭취시 관여하는가 調査한 結果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아기어머니 自身이 먹인다에 75예(65.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부 19예(16.67%) 그리고 조모 13예(11.40%)의 순위였다.

직업여성 집단에서는 아기어머니가 먹인다에 43예(39.09%) 조모가 36예(32.73%)로 別 差異 없으며 가

정부 25예(22.72%)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9> 수유나 다른 음식을 먹일때 품에 안았나

	주 부		직 장	
품에 안았다	85	74.56	101	91.82
품에 안지 않았다	29	25.44	9	8.18
$X^2=4.34 \quad P<0.05$				

(表 9)에서 비직업모성집단에서는 85예(74.5%)가 牛乳를 먹일때 품에 안았으며 29예(25.4%)가 품에 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101예(91.8%)가 품에 안았으며 9예(8.1%)가 안지 않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아기의 睡眠은 누구와 함께

	主 婦		職 場	
어머니 아버지	76	66.67	77	70.00
할 머 니	15	13.16	22	10.00
가 정 부	16	14.04	7	6.36
혼 자	7	6.14	4	3.64

(表 10)에서 아기의 수면은 누구와 함께를 조사한 結果 비직업모성집단, 직업모성집단 양집단 다 어머니와 함께가 77예(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조모와 함께의 순위인데 직업모성집단이 22예(10%)로써 비직업여성집단 15예(13.6%)보다 높으며 가정부와 함께는 비직업모성집단이 16예(14.4)로 직업여성 7예(6.1%)보다 높았다.

<표 11> 자기 이불 요를 따로 가졌나요?

	주 부		직 장	
예	85	74.56	107	37.27
아 니 오	25	21.93	0	
무 응 답	4	3.51	3	2.73

(表 11)에서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 85예(74.5%)가 자기 이불 요를 따로 가졌으며 25예(21.9%)가 이

불 요를 따로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100%가 이불 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2〉 아기들보는데 所要時間

	주 부		직 장	
	No.	%	No.	%
5시간 以下	27	23.68	42	38.18
6~10시간	30	26.32	33	30.00
11~15 "	16	14.04	7	6.36
14시간以上	14	12.28	18	16.36
無 應 答	27	23.63	10	9.09

(表 12)에서 어머니가 아이 들보는데 소요되는 時間을 調査한 結果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30예(26.3%)가 6~10時間 돌보는 時間으로 높은 율을 차지했으며 27예(23.6%)에 있어서는 5時間 以上, 16예(14%)는 11~15時間, 14예(12.2%)는 16時間 以上の 順位를 보여 주었다. 이에 比하여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42예(33.10%)의 5시간 以下가 순위이며 그 다음 순위는 다음과 같다. 33예(30%) 6~10 時間, 18예(16.3%)가 16時間 以上, 7예(6.3%)가 11~15時間의 순위였다.

〈표 13〉 몇명의 보모를 바꾸었나요?

	주 부		직 장	
	No.	%	No.	%
1	22	19.30	50	45.45
2	4	3.51	17	15.45
3 以上	10	8.77	14	12.73
無 應 答	78	68.42	29	26.36

(表 13)에서 영유아를 기르는 동안 몇명의 보모를 바꾸었나의 조사에 있어서는 비모성집단은 무응답에 73예(68.42%)로써 수위를 보여줘 本人이 直接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관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1명을 바꾸었다가 22예(19.3%), 3명이 10예(8.77%), 2명이 4예(3.5%)의 順位를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50예(45.4%)가 1명의 보모를 바꾸었으며 2명, 3명을 바꾸었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4〉 누가 기저귀를 갈아 주나요?

	주 부		직 장	
	No.	%	No.	%
母	63	60.53	54	40.09
祖母	20	17.54	35	31.82
食 母	25	21.93	21	19.09
無 應 答	5	—	3	—

(表 14)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누가 주로 갈아주나 調査에 있어서는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어머니 自身이 갈아 주는데 63예(61.53%)로 높았고 그 다음 가정부 25예(21.93%), 祖母 20예(17.54%)의 순위였다. 직업모성집단에서는 아기 어머니가 갈아주는데 54예(40%)로 역시 수위였으나 次位인 祖母가 갈아 주는데 35예(31.8%)와 別差異가 없음을 보여주고, 가정부가 21예(19%)의 순위로 비직업모성집단과 比較해 볼 때 次位 순위가 바뀔을 볼 수 있다.

〈표 15〉 누가 목욕을 시키나요?

	주 부		직 장	
	No.	%	No.	%
母	63	15.26	75	68.18
祖母	27	23.68	27	24.55
食 母	24	21.05	8	7.28
無 應 答	4	—	5	—

(表 15) 목욕은 누가 시키는가 응답에 조사한 結果 양집단 63예(55.2%), 직업모성집단 75예(68.1%)로써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조모가 시킨다는 양집단 모두 7예(24.6%)로 같았으며 가정부가 시킨다는 응답에는 비직업모성집단 24예(21%) 보다 직업모성집단 8예(7.2%)가 낮은을 볼 수 있다.

〈표 16〉 유아와 가장 많이 논사람 즐겨준 사람은

	주 부		직 장	
	No.	%	No.	%
母	63	52.63	29	26.36
祖母	29	25.44	39	35.45
食 母	15	13.16	41	37.27
無 應 答	10	8.77	1	0.91

(표 16) 영유아와 가장 많이 즐겨준 사람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아기어머니 자신이 즐겨준다는 67예(52.6%)로 높았고 그다음 조모 29예(25.4%), 가정부 15예(13.1%), 무응답이 10예(8.7%)의 순위였다.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영유아와 가장 많이 즐겨준 사람이 가정부가 41예(3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조모 37예(35.4%) 아기어머니 29예(26.3%)로 직업을 가진 어머니임을 보여주었다.

〈표 17〉 어머니 외에 유아를 기르는데 관여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 부		직 장	
	No.	%	No.	%
부	0	—	12	11.91
조 모	42	36.84	33	30.00
식 모	37	32.46	34	40.09
무 응 답	35	30.70	11	10.00

(표 17)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참여도를 보고져 유아를 기르는데 관여자를 조사한 결과 非職業母性集團에서는 조모가 42예(36.8%)로 높았고 그다음 가정부 37예(32.4%), 아버지의 관여도는 한명도 없음을 볼 수 있는 반면 직업모성 집단에서는 가정부가 54예(40%)로 수위이며 조모 33예(30%),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아버지의 관여가 12예(11.9%)로 직업모성집단 영유아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8〉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습니까?

	주 부		직 장	
	No.	%	No.	%
네	70	61.40	41	37.27
아 니 오	42	36.84	53	52.73
무 응 답	2	1.76	11	10.00

$$X^2=0.24 \quad P>0.05$$

(표 18)에서 비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70예(61.4%)가 손가락을 빨았으며 42예(36.8%)의 영유아가 빨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집단 영유아의 58예(52.73%)가 빨지 않으며 41예

(37.2%)의 영유아가 손가락을 빠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9〉 출생시의 아버지의 나이는 몇살입니까?

	주 부		직 장	
	No.	%	No.	%
30 세 이 하	18	15.78	18	16.36
31 ~ 35 세	48	42.11	66	60.00
36 세 이 상	22	19.30	18	16.36
무 응 답	26	22.81	8	7.28

〈표 20〉 출생시 어머니의 나이는 몇살입니까?

	주 부		직 장	
	No.	%	No.	%
25 세 이 전	36	31.58	4	3.64
26 ~ 30 세	31	27.19	62	56.36
31 ~ 35 세	19	16.67	34	30.91
36 세 이 상	16	14.04	6	5.36
무 응 답	12	10.52	4	3.64

〈부모의 특성〉

(표 20)에 의하면 비직업모성집단의 아버지의 연령 31~35세가 48예(42.1%)로 가장 많고 직업모성집단역시 31~35세가 66예(60%)로 수위이며 직업모성집단의 차위는 36세 이상 22예(19.3%)인데 비해 직업여성집단은 26~30세와 36세 이상이 18예(16.3%)로 같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을 보면 비직업모성집단 25세이전이 36예(31.5%)로 수위이며 26~30세가 31예(27.1%), 31~35세 19예(16.6%), 36세이상 16예(1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은 비율을 볼 수 있는 반면 직업모성 집단은 26~30세가 62예(56.3%)로 높았고 31~35세 34예(30.9%), 36세이상 6예(5.3%)이며 낮은 25세 이전 4예(3.6%)를 볼 수 있다.

〈표 22〉 계획했던 아이입니까?

	주 부		직 장	
	No.	%	No.	%
네	68	59.65	83	75.45
아 니 오	35	30.70	15	13.64
무 응 답	11	10.65	12	11.91

$$X^2=8.398 \quad P<0.05$$

(표 22)의 영유아의 출생이 계획했던 아이인가 調査結果 비직업모성집단에서는 68예(59.6%)가 “예”로 찬성인 반면 35예(30.7%)에 있어서는 “모르는 중에 계획도 없이 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83예(5.4%)가 계획했던 아이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15예(13.6%)에 있어서는 계획되지 않은 아이로 낮은 비율을 볼 수 있다.

〈표 23〉 經濟的 躰收入은 얼마입니까?

	주 부		직 장	
	No.	%	No.	%
하 (5 만 원)	39	34.21	4	3.64
중(10 만 원)	51	44.74	55	50.00
상(10만원이상)	4	3.51	26	23.64
무 응 답	20	17.54	25	22.72

(표 23)의 영유아 출생시 경제적 수입은 조사 결과 상·중·하로 기재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비직업모성집단, 직업모성집단 양집단 수위를 중정도로 53예(50%) 높은 비율을 볼 수 있고 비직업모성집단은 下정도가 39예(34.2%)로 차위이고 상정도 4예(3.5%)로써 낮은 비율인 반면 직업모성집단은 차위 26예(23.6%)로 상정도이고 4예(3.6%)로써 下정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V. 論議 및 結論

A. 對象兒의 一般의 特徵

영유아의 어머니를 상대로 일부 非職業母性 45명 영유아시의 양육方法을 기재해준 영유아 대상 110명과 職業母性(서울市内 看護教育을 擔當한 직업모성 53명과 역시 영유아 대상 114명으로 總 224명을 對象으로 하였다. 調査 대상자의 性別 및 出生年度 分포를 보면 남아가 112名(52.34%), 女兒가 102名(47.66%)으로 남아가 많았으며 그 중 非職業母性集團의 경우는 男兒가 50예(43.86%) 여아가 54예(47.46)였고 職業母性집단은 男兒가 62예(47.4%) 여아가 48명(43.6%)으로 양집단에 있어 男女의 構成比는 비슷하여 性別의 큰

차이는 없음을 볼 수 있다.

出生年度別 分布는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까지 보았는데 그 중 전체의 비율은 70년 이전이 75예(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9년 61예(29%) 그의 72年度 出生이 33名(15.7%), 71年度 23名(10.9%), 73년도 出生이 18名(8.5%)의 순위를 볼 수 있다 70년 이전의 출생율과 70년도 이후 出生率로 나누어 볼 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직업모성집단은 69년이 47명(41.2%)으로 수위를 차지하며 직업모성집단은 70년이 48명(43.6%)으로 수위이며 72년도 出生比는 양집단 17명(15.4%)으로 같음을 볼 수 있다. 73년도 出生은 비직업모성집단 12명(10.5%), 職業母性集團 6名(5.3%)으로 저조한 出生比率를 봄으로써 政府施策인 家族計劃事業의 영향인 듯 싶다.

出生時 體重에 대한 사항의 非職業母性集團에 무응답이 28名(24.5%)이였음은 가정분만등의 原因으로 대부분이 出生時 體重을 測定치 않았거나 또 소수에서는 體重에 關한 기억상실로 사료된다.

記錄된 것중 調査 結果로 兩集團이 出生時 體重이 平均 3.0~3.4kg가 과반수 이상으로 수위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만삭후 出生한 아기의 平均 體重 3.3kg (7 1/4Lbs)을 증명해 주었다.

出生場所는 調査對象이 된 非職業母性集團과 職業母性集團과의 차가 판이하게 다르다. 職業母性集團은 104명(95%)이 병원에서 出生했으나 비직업모성집단은 30명(26.5%)만이 병원에서 出生했고 大部分이 가정분만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권(1965)의 서울시 調査에 의하면 家庭분만이(61.1%), 病院분만이(35.5%)이고 차(1964)의 農村調査報告에 의하면(89.0%)가 가정분만이며 김(1969)의 도시 지역 보건소내 육아지도회 등록자의 분만장소에 대한 발표를 보면 병원분만이 41.1% 가정분만이 58.9%이었다. 양, 김(1968)의 연세지역 保健기초 조사에 의하면 가정분만이 76.4% 병원분만이 23.6%이었다. 본 연구자의 조사 결과로는 대상의 차이가 현저해서인지 職業母性集團의 병원분만이 100%에 달하고 1人만이 가정분만을 시도했음을 볼 수 있다.

出生 順位別 調査에 있어서는 영유아 총 214명 중에서 셋째 아이까지 갖는 율이 兩集團 다 42명(49%)으로써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둘째 아이 순위가 비직업모성집단 22명(24%), 직업모성집단 32명(25.6%)의 차이이며 아이 1명인 경우도 양집단 差가 없음을 볼 수 있으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아이 넷까지 둔 비교에

있어서는 비직업모성집단 10예(15%)에 비해 직업모성 집단 1예(1.8%)의 차를 볼 수 있다.

김(1969)에 나타난 종로구와 마포구 保健所 育兒지도회에 등록된 영유아는 모유가 72.6%, 모유와 우유 혼합이 19.9% 우유와 기타 혼합식이 7.5%이며 일부 農村地域의 영유아 영양관계 논문 發表(1966)에 의하면 모유가 48.9%이고 혼합식이 51.1%이며 염(1970)의 연세 의료원을 중심으로 發表에 의하면 모유 42.7% 우유 7.8% 혼합식이 19.5%였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모유(79명) 우유(16명) 혼합식이(64명)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미 있는 현상은 비직업모성집단의 경우는 직업모성집단보다 훨씬 늦게 다른 음식(5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이유식의 시작시기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母乳를 먹이기에 편리하다는 것과 經濟的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다.

B. 養育方法

아기의 養育者에 관한 조사에서 누가 牛乳를 시키는데 關여하는가 調査한 結果 애기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集團에 있어서 職業을 가지고 있는 傾向이 높은 것과 아울러 아기의 양육에 있어서 家庭婦(25예(22.7%)) 보다 친정 어머니가 회소하고 시어머니의 영향을 입었다. (36예(32.7%))는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이 結果는 우리나라의 家族制度가 아직도 核家族制度가 아닌 大家族制度임을 말해 주고 있음을 알았다.

牛乳나 다른 음식을 먹일 때 품에 안았나에 調査結果에 있어서는 非職業母性集團에서는 85명(74.5%)이 우유를 먹일 때 품에 안았으며 29명(24.4%)이 품에 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집단에 있어서는 101명(91.8%)가 안은 것으로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養育方法에 대해서 지식과 關心이 많을 수록 아이에게 수유를 시킬 때 안는 일이 더 많다는 結論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비직업모성 집단이 이유식도 늦게 시작한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기의 수면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는 양집단 모두 어머니와 함께가 77명(70%)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조모와 함께 순위인데 직업모성집단이 22명(10%)으로써 비직업여성 집단 15명(13%)보다 높았으며 家庭婦와 함께는 비직업모성 집단이 16명(14%)으로 직업모성 주부 7명(6%) 보다 훨씬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의 關여자는 양집단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에게 자기 이불, 요를 따로 주었나는 비직업모성 집단이 85명(74.5%), 따로 주지 않았나에 25명(21.9%)이고, 이에 비하여 직업모성 집단에 있어서는 107명(97.2%)가 이불, 요를 따로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結果 平均 非職業母性 集團에 있어서는 6~10시간 돌보는 시간 30명(26.3%)으로 많았으며 직업모성 집단에 있어서는 42명(38.1%)의 5시간 이하를 본다가 수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영유아를 기르는 동안 몇명의 保姆를 바꾸었나에 있어서는 비직업모성 집단 무응답 78예(68.4%)로써 수위로 보여줘 本人이 직접 영유아를 養育하는데 關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職業母性 집단은 50명(45.4%)이 1명의 보모를 바꾸었으며 2명, 3명의 보모를 바꾸었다의 차이는 적음을 볼 수 있다.

아기를 養育하는데 關여도를 기저귀, 목욕, 놀이로 要約해서 본 結果 兩集團 모두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關여를 하며 차위의 순위에 있어서 비직업모성 집단은 食母가 25예(21.9%)로 직업 모성집단은 조모가 35예(31.8%)로 차이가 있다. 이는 아이를 완전히 맡기고 나간 위안으로 어른이 집에 있으면 安定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特記할만한 事項은 어머니 以外 유아 기르는데 關여자를 調査한 結果 조모, 가정부 順位인데 非職業母性 집단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關여가 한명도 없음을 볼 수 있는 반면 직업모성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關여가 12예(11.9%)로 직업모성 집단 영유아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關심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의 습관의 일부인 손가락 빠는 것을 연구 조사한 결과 비직업모성 집단 아이가 70예(61.4%), 직업모성 집단 아기보다 41예(37.2%), 훨씬 높은 비율 보여 주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것과 정서적인 안점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육방법과 아기에 대한 關심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C. 부모의 一般의 特性

父母의 一般의 特性에 年令은 非職業母性 집단이나 직업여성 집단을 莫論하고 아버지의 年令 31~35歲群이 가장 많으며 어머니 年令分布로 보아 비직업여성 집단 25세 이전이 수위인 36예(31.5%)이며 직업모성 집단은 26~30세가 62명(56.3%)으로 수위를 보여 비직업모성 집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은 출생율을 볼 수 있으며 직업모성 집단은 25세 이전 4명(3.6%)으로 현저한 차를 볼 수 있다.

영유아의 出生이 계획했던 아이인가 調査結果 非職

業母性集團에 있어서는 68명(59.6%)이 찬성인 반면 35명(30.7%)에 있어서는 모르는 중에 계획도 없이 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직업모성 집단에서는 83명(75.4%)이 계획했던 아이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15명(13.6%)이 예외인 낮은 비율을 볼 수 있다.

經濟的 收入은 상(10만원이상) 중(10만원), 하(5만원)로 기재한 것을 調查 結果 양집단 모두가 중정도가 상위 5명(50%)이며 非職業母性集團은 하정도가 39명(34.2%)으로 차위이고 상정도는 4명(3.5%)으로 낮은 비율을 볼 수 있는 반면 직업모성 집단은 상정도가 26명(23.6%)으로 차위이며 하정도 수준이 4명(3.6%)으로 정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要約 및 結論

서울 市內 居住者로서 자녀를 둔 일부 직업모성과 비직업모성 집단을 1973년 5~6월까지 각각 50명씩 도합 100명의 주부를 상대로 질문지를 주어 기재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집된 영유아 224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 일반적 특성 양육법 즉 가정에서의 포괄적 간호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여 영유아를 위한 가정에서의 양육법을 發展시키고 아울러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安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 1. 직업모성의 자녀들은 母性的 愛情 결핍으로 손가락을 빨 것이더라는 항목에서는 非 職業母性 자녀들이 손가락 빠는데 높은 비율을 보여 첫째 가설은 부정되었다.

가설 2. 직업모성들은 자녀들을 계획하여 원하는 자녀를 갖었을 것이라는 항목에서 非 職業母性集團에 비해서 높은 유의도를 보여 둘째 가설은 긍정되었다.

가설 3. 非 職業母性集團은 자녀를 음식먹일 때 품에 안았을 것이라는 項目은 職業母性集團과 比較해서 유의도가 낮았으므로 셋째 가설은 부정되었다.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보면 子女數의 比較에 있어서 職業母性集團이 子女를 計劃해서 出産함을 보여줘 妥當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兩集團 男女의 영유아 構成比는 비슷하여 性別의 큰 차이는 없음을 볼 수 있다.

特記할 만한 事項은 出産場所에 있어서 職業母性集團은 1名 제외인 전원이 病院분만인 반면 非 職業母性集團은 家庭분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유에 있어서 職業母性集團은 우유를 먹이는 유의도가 높은 것은 직업으로 인해 아이와 집에 같이 있지 못하는 證明해 주었으며 混合食이에 있어서는 비직업모성 집단이 5명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줘 이유식의 시작

시기와 重要性에 대한 認識不足과 母乳를 먹이기 便利하다는 것과 經濟的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다.

養育하는데 관여자는 職業母性 집단에서는 시어머니가 높았으며 비직업모성 집단은 食母가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養育에 관여도는 職業母性 12에 비해 非 職業母性集團은 1에도 없는 제미 있는 現象이다. 牛乳나 다른 음식을 먹일때 품에 안았나요? 시간의 여유와 항상 어머니가 곁에 있음으로 非 職業母性集團이 높은 것이다. 質問에서 정반대의 結果를 보여 주었으며 애정의 결핍으로 손가락 빠는 습관을 조사한 결과 비직업모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이것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것과 정서적인 安定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思料되며 養育方法과 아기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머니가 子女를 조모나 家庭婦에게 의뢰할 경우는 양육에 대한 重要性 方法을 세밀히 敎育시켜야하며 영유아기때 잘 養育하여야 健康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提言해 주어야 한다. 時間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어머니가 손수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1) 강신표 : 방항모선암시, Vol. 7, No. 1, p. 49, 1970.
- 2) 권이혁 외 5인 : 도시 영세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 pp. 47-62, 1967.
- 3) 김명엽 : 공중보건잡지 Vol. 9, No. 2, 1972, p. 281.
- 4) 김영숙 : 공중보건잡지 Vol. 6, No. 1, pp. 91-100, 1970.
- 5) 김태련 역 : 아동의 심리학적 발달(서울 : 익문사 1973) pp. 33-42.
- 6) 김성태 : 발달심리학(서울, 法文社, 1967) p. 82
- 7) 나병술 저 : 발달심리학(서울 : 대학출판사 1969) pp. 94-132.
- 8) 남덕우·김진양 공저 : 아동심리학(서울 : 왕문사 1966) pp. 97-132.
- 9) 이현수 : 간호심리학(서울 : 수문사 1972) p. 12.
- 10) 박희정 : 소아과 간호학(서울 : 수문사 1968), p. 67.
- 11) 스포크 박사 저, 김효규 역 : 육아전서(서울 : 정음사, 1969) pp. 221-229.
- 12) 양재모 외 1인 :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기초조사 예방의학회지, Vol. 1, No. 1 pp. 25-36, 1968.

- 13) 장병립 : 아동심리학(서울 : 법문사 1969) p. 112.
- 14) 전산표 : 내외과 간호학(서울 : 수문사 1971) p. 3
- 15) 최연순 : 대한간호학회지 제2권 제1호 1971. p. 219.
- 16) 하영수 : 산소아과 간호학(서울 : 수문사 1972) p. 5.
- 17) 허정도 : 모성보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실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별책 1963) pp. 10-11.
- 18) 황응윤 편역 : 어린이를 위한 정신 위생(서울 : 제동문화사, 1962) p. 18
- 19) Breckridge, M. E. : Vincent E. L., Child Development (Philadlphia, W. B. Saunder, 1964). p. 9.
- 20) Erick Erickson: The course of Healthy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1960. p. 274.
- 21) Forest, I. :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ow Hill 1954. p. 36.
- 22) Freud, S. : Three Contribution the theory of Sex in A Brill(ed) New York, Mordern Library 1938. pp. 553-629.
- 23) G. S. Benz. : Pediatric Nursing 5th ed(Saint-Louis the C. V. Mosby Co. 1964) pp. 66-73.
- 24)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5. p. 167.
- 25) Jersild, A. T., Child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1947. p. 235.
- 26) Madeline H. Schmitt: Superiority of breast-feeding fact or f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0. No. 7. p. 1488. To Help Infant Weather Disorganized Family Life A. J. N. 1969. p. 168(8月號)
- 27)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child development, Childrens Bureoce에서 발간됨. Infant case p. p 1-13.
- 28) Mussen, P. H. et al., : Child Development Personality(New York, Harper, 1963). p. 3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 of Nurturing During Infancy Between Mothers With and Without Occupation

So In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Yun Soon Choi, Associate professor>

Health at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for healthy life thereafter. Concept of nursing is inclusive not only of physical care but also psycho-social aspect in order to help achieve maximum state of wellness.

Statistical studies reveal concept and structure of family and home tends to change towards nuclear type, ratio of female occupancy tends to increase. These tendencies will influence the method of infants and childre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and without occupation, method of nurturing and analyse data according to various variables, in order to give data for care for infants and children.

During the period of June 12 though July 22, 1973, 98 mothers and their 224 children; 53 mothers with occupation with 110 children and 45 mothers without occupation with 114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rectly through check list.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1. Hypothesis 1; Tendencies of finger sucking" will be greater in children of occupant mothers due to lack of maternal love.

Through chi-square examination, significant difference is revealed by $P > 0.05$ level, therefore Hypothesis 1 is rejected. ($X^2 = 0.24$)

2. Hypothesis 2; occupant mothers tend to have had wanted number of children through family planning.

Ratio of wanted versus unwanted children were tested and significant difference is revealed by $P < 0.05$ level. Hypothesis 2 is supported. ($X^2 = 8.398$)

3. Hypothesis 3; Non-occupant mothers tend to cuddle more while feeding infants.

Significant difference is revealed through Chi-square test by $P < 0.05$ level. Hypothesis 3 is rejected. ($X^2 = 4.34$)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Occupant mothers' higher degree of interest and consideration compared to that of non-occupant mothers in regard to nurturing of their children have been ascertained by this study.

These results might have come up due to the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and cultural status of respondents.

Further studies on each variable between mothers with and without occupation with similar socio-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 are recommended.